

# 청년주보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 1,29



그림 | 김로사

**입당송** 시편 66(65),4 참조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제1독서** 이사 49,3,5-6

**화답송** 시편 40(39),2-3과 4-5,7-8과 8-9,10(◎ 8과 9 참조)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경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2독서** 1코린 1,1-3

**복음환호송** 요한 1,14,12 참조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복음** 요한 1,29-34

**영성체송** 시편 23(22),5 참조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사랑의 공동체 대림동 성당 청년부 ♥



### 청년 미사 후 다과회

매주 주일 청년 미사 후 만남의 방에서 다과회 (15분)를 진행합니다. 다과회에서 비활동청년을 포함한 모든 청년 신자들이 초대되어 다과와 함께 담소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 함께 하시는 성모님

저희 본당은 고즈넉한 마당이 너무나 예뻐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성모 동산과 고요한 마당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성당 입구에 들어서며 성모 동산과 성모상을 바라볼 때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 청년 BBQ 파티

본당 마당에서 매년 여름 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 설치를 합니다. 청년들이 수영장 봉사를 여름 내내 진행하고 수영장 폐장 전날 저녁에 즐거운 BBQ 파티를 합니다. 친구를 나누며 한 여름밤 시원한 물과 함께 구워 먹는 고기의 맛이란!

#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조영래 베드로 신부  
청소년국 중고등학교 사목부

어린 시절 여러 가지 놀이가 있었지만, 그중에 숨바꼭질 놀이는 모든 청년들이(?) 한 번씩은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유대인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제설은 느닷없이 할아버지 방에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유명한 라빠 바룩이었습니다. 제설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친구가 무례하게 굴었어요. 친구랑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잘 숨는 바람에 저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친구가 못 찾겠다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너무하지 않나요?” 라빠는 아이에게 “그렇구나, 그런데 애야, 하느님도 마찬가지로 시란다. 그분이 숨으셨는데 우리가 찾지 않는 거란다. 잘 생각해 보렴, 하느님이 숨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찾지도 않으니 말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느님과 숨바꼭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숨어계신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들이 제일 찾기 어려운 곳인 우리들 마음과 삶 안에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삶 곳곳에 숨어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하느님을 찾을 수 없다고 불평하며 금방 하느님 찾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당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리며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를 찾았느냐?” 술래를 피해 숨는 곳은 바로 좁고 어둡고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낮은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숨어계신 하느님을 우리는 쉽게 드러나는 곳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하느님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시다.

오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으로 이야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두 번이나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분명히 메시아가 계심을 기다리며 그분의 길을 준비하며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지 잘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내려오시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다고 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자 요한처럼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묵묵히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느님을 찾는 일을 계속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하느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분을 믿고 용기를 낸다면 우리의 삶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가장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하느님은 어쩌면 우리와 정말 가까운 곳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싫은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 실망과 좌절 안에도 하느님은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 숨어계신 하느님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 동안 하느님과 숨바꼭질 놀이하면서 하느님을 꼭 찾으셔서 하느님을 술래로 만드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 주님이 머문 자리

나라도 언어도 문화도 모두 다른 우리였지만  
피조물을 보호해야 한다며 'Laudato Si'를 외치던 순간이 잊히질 않습니다.  
각자 다른 위치에 있지만,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보편 교회를 느꼈습니다.

[최유진 스텔라]

대림동 성당 청년들아~

## 마음 다해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니?

A

###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좋아하고 또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나는 특히 화살기도로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곤 한다. 누군가 문득 떠올랐을 때,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전례단 회합에 참여하지 못한 단원을 위해, 부모님이 갑자기 생각났을 때, 내가 아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문득 떠올랐을 때, 대림동 성당 청년들과 신자들을 위해, 모든 천주교 신자들을 위해,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이런 화살기도를 일상 중에 갑자기 바치거나 혹은 미사에서 영성체 후에 자주 바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고,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떠올리지 못한 다른 사람이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광범위한 기도까지도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신다고 한다. 하느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 \_ 김남은 바오로미키

A

### 상처 받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성당에서 새롭게 단체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또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회의를 느껴 위안을 받고 또래의 신앙인들을 통해 행복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결국 성당의 단체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상처 받은 사람들이 생겨난다. 난 아직 이렇다 할 큰 상처를 받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보고 들을 때면 참 마음이 아프다. 그 사람들이 모두 좋은 마음으로 다녔을 텐데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 이곳도 어쩔 수 없는 사회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지 않다. 청년 활동을 하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늘 고민했고 그럴 때마다 기도를 드렸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겐,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이다. 물론 이 기도들로 당장 바로 많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어느새인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다. 앞으로도 또 다른 오해들과 상처들이 생겨나겠지만 그때마다 더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준다면 조금은 서로를 아끼주고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_ 신승지 아녜스

A

### 영원한 빛 정영일 안드레아에게



나에겐 작년 5월에 세상을 달리한 그리운 친구가 있다. 정영일 안드레아를 처음 만난 건 6년 전이다. 그때 안드레아는 뇌종양이라는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 우리는 청년 레지오 활동을 함께 했고 많이 울고 웃었다. 마치 연인처럼 우리는 아파트 구석구석을 거닐며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단체 활동에 대한 이야기,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성모님의 보살핌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웠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것은 하느님을 향한 우리만의 찬양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 안에 초대되었고 살았다. 안드레아는 항암치료라는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열망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랐다. 안드레아가 세상을 떠나고 2주쯤 후에 밝게 웃는 모습으로 꿈에 찾아왔었다. 깊은 신앙적 메시지를 남겨준 정영일 안드레아를 항상 기억하며 기도한다. 천국에 있음을 의심치 않는 그 친구에게, 남아있는 우리 본당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여 주님께 전구해주시기를 청한다. 그리고 다시 만날 그날에 모든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한다. \_ 이지환 예로니모

A

### 절망에 휩싸여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을 위해



가족 집단 자살이나 삶을 비관해 자살하는 이들의 소식이 많이 들려온다. 우리나라는 10만 명 당 26.6명의 자살률(18, KOSIS-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참고)로 2003년 이래 OECD국가 중 자살률이 제일 높고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쓰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오명조차 익숙해져 더 심각한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우리는 1년에 한 마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자살로 잃고 있는 셈이다. 생명체로 태어나, 자기 자신이 인생의 끈을 싹둑 잘라 버리는 것은 자연적으로 볼 때 매우 이상하다. 즉 각기의 슬픈 사연들과 그로 인한 절망, 압박, 무기력함 등이 자연적인 본능마저 뛰어넘어버리는 것이다. 나 또한 그런 경험이 있기에 또 지금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기에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다. 극한 상황에서는 희망을 잃어버리기 쉽다. 희망이 없으면 삶을 이어나가는 원동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희망을 잃지 말길,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알려 도움을 받을 힘이라도 남아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다. \_ 명지안 아그네스

내.알.맞  
마.아.출  
음.주.성  
을.는.구



매날 얻어 먹으려는 친구가 얄밟게 느껴질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 10,8)



##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프란치스코

### ‘프란치스코 교황: 맨 오브 히즈 워드(Man of his word)’ 관람기

하루에도 생물 개체 150종이 멸종되는 세상. 먼 미래에는 지구의 인구가 80억이 넘을 만큼 번성하겠지만 그중 10억은 굶주리는 세상.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교황님의 이야기를 다룬 <프란치스코 교황: 맨 오브 히즈 워드>는 곳곳에 제시되는 날카로운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 세 가지로 관람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재물에 희망을 두는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 교황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삶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보다 훨씬 부의 양이 많아지고 자원 역시 늘어났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 재물에 희망을 두었던 지난 교회의 역사를 반성하고, 복음의 중심에 있는 ‘가난’에 대해 치열하게 성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2. “이건 우리 모두의 수치입니다. 누구라도 나는 상관없다 할 수 없습니다.”

- 교황님은 UN 총회 연설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남용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인간의 낭비 문화 및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는 누구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고, 전 지구인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 지구(Madre Tierra)’와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 3. “하느님께서 잊으셨는데 제가 누구라고 기억하겠습니까?”

- 교황님은 세계 각지의 죄수를 만나는 일에도 적극적이셨습니다. 교도소 설교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회개한 도둑’ 성 디스마스(St. Dismas)를 언급하면서, 최초의 성인은 죄수였으며 회개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죄수들에게 마음속 희망을 선물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용서’라는 덕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그 옛날 어두웠던 시기에 운동주 시인이 불렀던 노래를 떠올려 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인류의 정신문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가톨릭의 수장으로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성찰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은 괴로움의 연속일 테지만, 영화 내내 교황님의 표정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교황님의 행보와 말씀에 주목하여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주는 영화 <프란치스코 교황: 맨 오브 히즈 워드>. 청년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며 교황님의 발자취와 함께해 보는 건 어떨까요?

[편집부 송슬기 미카엘]

####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아래 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 가능

때 2월1일~3일(한라산), 2월7일~9일(한라산), 2월13일~15일, 2월22일~24일(한라산), 2월28일~3월1일(한라산)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 2020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원서접수 2월7일(금)까지 우편접수 가능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 02)745-8339